

“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를 골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 속 주인공 주수인처럼, 나도 “이것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할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함께 나눠보아요.
2.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고정관념’(편견)이 많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뭐? 여자가 야구를 해?”라고 말하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나도 남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진 채로 말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눠보아요.
3. 영화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신의 꿈에 다다르지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해요. 야구부 코치,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 그리고 주수인의 아버지. 그들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아요.

“ 말씀과 함께 나누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6, 위운성경)

극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속 150k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수인에게, 사람들은 ‘넌 안돼’, ‘포기해’, ‘너의 꿈은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해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꿈을 함부로 판단하고 좌절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주수인은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자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만을 믿다가는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너클볼’을 던지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허황된 꿈을 갖고,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잃지 않으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을 더욱 확실히 완성해주실 거예요.

“어떤 영화예요?”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자이자 최고 구속 134km, 볼 회전력의 장점으로 '천재 야구소녀'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목받았던 야구 선수 '주수인'. 고교 졸업 후 오로지 프로팀에 입단해 계속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꿈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도 기회도 잡지 못한다. 자신을 가장 잘 믿어주고 이끌어줘야 할 엄마, 친구들, 그리고 감독까지 모두가 꿈을 포기하라고만 한다. 하지만 야구부에 새로운 코치 '진태'가 부임한 후 수인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영화는 주수인이 살아가는 세상과 겪는 고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그래서 주수인의 노력이 더욱 값지고 빛난다. 어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는다. 그렇게 주수인처럼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져왔고, 꿈을 향해 나아가 봤다. 그리고 한번쯤 능력의 한계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도 해봤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세상의 모든 주수인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따뜻하고 묵직한 영화이다.

“영화이해를 위한 꿀TIP!”

<야구소녀>를 제작한 최윤태 감독은 아내가 한 인터뷰를 보고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 이 영화를 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아내가 리틀 야구팀에 있는 여학생의 인터뷰를 본 후 내게 안타까움을 전했어요. 인터뷰에서는 그 소녀를 천재 야구소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여자가 야구를 해?’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시선이 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프로농구, 남자 프로배구처럼, 프로야구는 다른 스포츠들과 달리 맨 앞자리에 성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프로야구는 남녀 모두가 뛸 수 있는 무대라는 뜻으로, 남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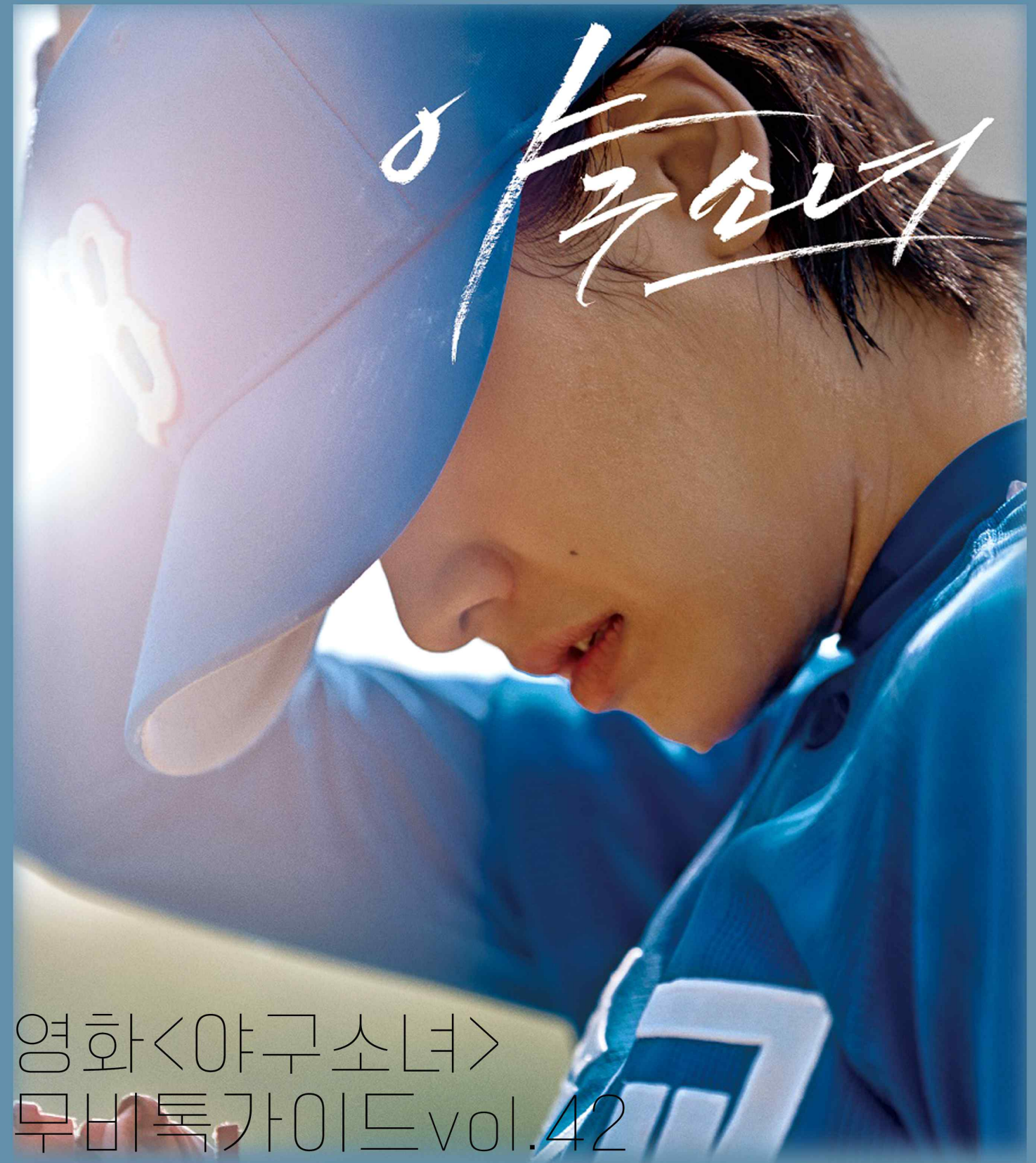
또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언어장애가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넌 대학교도 안 나와서 무슨 영화감독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극 중 주수인이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라고 말하며 밤낮으로 야구 연습을 한다. 최윤태 감독은 이 주수인의 담백하면서도 강렬한 대사에 대해 “극 중 주수인이 듣는 얘기가 바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라며, 이 영화가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주수인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슬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



“너는 ‘별’이다”

- 나만의 밝은 빛을 지니고 있는 별과 같은 당신에게 -

문화선교연구원 + 필름포럼